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분류체계 개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Classification System for Archives of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박 성 우(Seong-Woo Park)**

정 대 근(Dae-Keun Jeong)***

〈목 차〉

I. 서론	2. 국외연구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종합분석 및 시사점
2. 연구의 내용 및 절차	IV.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실증분석
II.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이론적 분석	1.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형태소 분석
1. 기록 분류체계의 원칙 및 개념	2. 분석결과
2. 선행연구 비교 분석 및 시사점	V.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분류체계
3. 시사점	1. 출처 기반 통합분류체계
III. 주요기관 기록물 분류체계 사례분석	2. 컬렉션 기반 통합분류체계
1. 국내사례	VI. 결론

초 록

본 연구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의 측면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분류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분류체계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록물 분류에 관한 선행연구 및 기관 사례분석을 실시하였고, 광주지역 5·18민주화운동 대표 기관 3곳에 소장 중인 자료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에 적합한 출처 기반 통합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이 분류체계는 '출처-자료-시기-매체-주제' 형태의 패킷기반으로 제안하였고, 또한 아키비스트의 역할의 확장과 시대성을 반영한 컬렉션 기반 통합분류체계도 제안하였다.

키워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분류체계, 기록물 분류, 주제기록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classification principle of archives for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in terms of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it and to develop an integrated classification system for it. For this purpose, it was carried out by the previous research on the classification of records and institutional case analysis. Also, we developed an integrated provenance-based classification system based on the practical analysis on the data held in 3 representative institutions in Gwangju. This classification system was proposed by facets of 'provenance-material-period-media-subject' type. We also proposed the collection-based integrated classification system that reflects on the expansion of archivists' role and the trend of times.

Keywords: 5·18 Democratic Uprising Archives, Integrated Classification System, Classification of Records, Subject Archives

* 본 논문은 "5·18 기록물 관리 고도화 및 통합분류체계 수립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였음.

**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culturepark@gmail.com) (제1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jdk1319@jn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 2017년 5월 20일 •최초심사: 2017년 5월 25일 •게재확정: 2017년 6월 19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2), 373-403, 2017. [http://dx.doi.org/10.16981/kliss.48.201706.373]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1980년 5월 18일에서 27일까지 총 10일간 전라남도 광주시(지금의 광주광역시)에서 군사정권의 부당한 독재에 항거하여 일어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기록물을 말하고 있다. 이 기록물은 2010년 1월 광주 지역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가 같은 해 3월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보완과 수정을 거쳐 2011년 5월 24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가 등재를 권고하기로 결정하였고, 2011년 5월 25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공식 등재되었다. ‘인권기록유산-1980년 5월 18일 군사정권에 대해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항쟁 관련 기록물’이라는 명칭으로 정식 등록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① 정부·전남도청·광주시청·광주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생산한 5·18민주화운동 자료, ②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자료와 군사법기관 재판 자료, ③ 시민들이 생산한 성명서·선언문·취재수첩과 시민들의 일기, ④ 사진 자료와 흑백필름, ⑤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 ⑥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기록, ⑦ 국회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회의록, ⑧ 국가의 피해자 보상 자료, ⑨ 미국의 5·18 관련 비밀해제 문서 등 총 9개 주제로 분류되어 있으며, 5·18민주화운동의 발발과 진압 그리고 이후의 진상 규명과 보상 등의 과정을 편철 4271권 85만 8,904페이지, 흑백필름 2017컷, 사진 1,733장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에 담고 있다(박정옥, 이명규, 2013).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함께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커졌으며, 이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개인소장자료의 기증으로 이어지면서 기록물의 양적증대도 함께 가져왔다.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이러한 질적 우수성의 입증과 함께 양적증대를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에 소재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기념재단, 전남대 5·18연구소 및 국가기록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방부 등 전국의 각 기관에 흩어져 보관되어 있어 실질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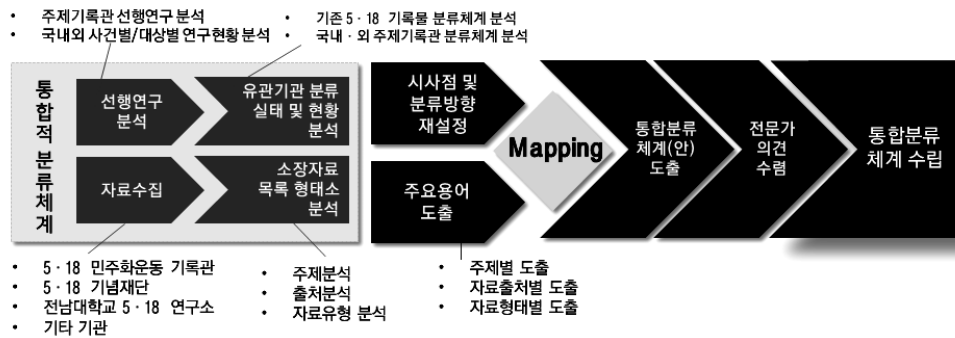
특히,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상당부분을 소장하고 있는 광주지역 5·18민주화운동 관련기관인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기념재단, 전남대 5·18연구소 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에 대한 분류기준(분류원칙, 분류체계)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관리기준도 명확하게 정의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2014)를 중심으로 개발된 기준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분류체계는 보유 데이터를 기반이 아닌 이론적 분류이며, 이로 인해 미정의 된 데이터가 다수 존재한다. 그리고 최상위 그룹인 Record Group이 주제를 기반으로 정의되어 있어 기록물 분류의 기본원칙인 ‘출처의 원칙’, ‘원질서 존중의 원칙’과 배치됨이 지적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에 방점을 두고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분류원칙 정립과 이를 통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의 통합적 기록물 분류를 위한 통합분류체계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내용 및 절차

본 연구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분류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통해 통합분류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에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통합분류체계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의 내용 및 절차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내용 및 절차

첫째,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통합분류체계와 관련한 전반적인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종합분석하여 분류기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통합분류체계에 대한 국내·외 현황을 사례 중심으로 조사하여 종합분석 하였으며,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통합분류체계에 적용가능한 적용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분류체계의 경우 소장 자료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5·18민주화운동 주제기록관에 적합한 실질적인 출처분류, 주제분류, 자료유형분류 등을 추출하고 이를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분류체계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을 중심으로 적용 가능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분류체계를 마련하였다.

Ⅱ.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이론적 분석

1. 기록 분류체계의 원칙 및 개념

가. 기록 분류체계의 원칙

기록물의 분류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기록물을 조직화할 때, 출처의 원칙, 원질서의 원칙, 계층적 관리, 집합적 기술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

출처 존중의 원칙은 기록의 생산 출처(조직) 및 기능에 따라 기록을 분류·정리·보관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퐁(Fonds) 존중의 원칙’이라고도 불린다. 기증자보다 생산자를 먼저 확인하고, 기록물의 보유자보다는 기록물의 생산자를 중심으로 우선하며, 기록물과 기록 생산자 간의 관계성을 더욱 중시하는 원칙이다. 기록은 기록이 생산된 기원(origin)에 의해 유지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조직에 의해 생산된 다른 출처를 가진 기록과 섞이면 안된다. 독일, 네덜란드,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출처에 의거하여 분류를 하고 있으며, 이는 출처의 원칙이 기록의 관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이다.

원질서의 원칙에서 원질서(original order)란 기록 생산자가 구축한 기록의 조직방식과 순서를 의미하며, 원질서의 원칙은 기록물들이 활동적으로 사용될 때의 것과 동일한 순서로 유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원질서 존중의 원칙은 유동성을 지니고 있으나, 이론적으로는 ‘본래 가지고 있는 문서적 관계를 보존’해야 할 때, 기록 안에서 ‘문서화된 활동이나 이용 그리고 생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때, 그 활동에 대해 ‘공정한 판단조건으로 기록의 가치’를 부가해야만 할 때 원질서 존중의 원칙은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종이기록물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접근점이 될 수 있으나, 전자기록의 경우 원질서의 개념이 거의 무의미하게 된다.

계층적 관리는 출처 존중과 원질서 존중의 법칙을 이행하는 방법으로 기록을 위계적인 구조에 따라 정리하도록 안내하는 것으로, 가장 크고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가장 작고 구체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연속체를 따라 점차적으로 기록 세트를 묶어주고 이에 대해 기술하는 것을 포함한다. 모든 통제의 단위가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개별적인 파일 단위의 기록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큰 집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집합적 기술의 원칙이란 기록의 기술이 개별 건이 아닌 집합적 수준(전체적인 구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개별 기록의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하는 것을 통해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의 상위 집합체>기록그룹>하위그룹>기록시리즈>기록절 등을 구성해야 함을 의미한다.

나. 기록 분류체계의 개념

기록물 분류란 기록을 조직화하고 내적인 질서를 부여하여 기록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과정이며, 현용기록 및 준현용 기록관리를 위한 국제표준 ISO 15489에서는 업무 활동에 기반한 분류체계의 틀 제공과 기록 처분 지침 및 접근 권한과 같은 다양한 기록 관리 과정을 지원해야하며, 적합한 어휘를 활용하여 제목작성과 기술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한국기록학회 2008, 130). 분류체계는 유사한 특징을 가진 자료는 모으고, 다른 특징을 가진 자료는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표를 의미함. 이는 조직의 기능 및 업무에 기반한 기능 분류체계, 생산기관 중심 조직별 분류체계, 주제(내용) 중심 분류체계 등으로 구분된다. 기록물의 분류는 단순히 기록물을 구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기록의 평가, 접근 통제, 공개관리 등 다양한 기록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방편이 되며, 이는 기록물의 진본성과 증거 가치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한국기록관리학회 2013, 193).

2. 선행연구 비교 분석 및 시사점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매뉴스크립트의 관리는 일반적인 기록물의 관리와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독자적 분류 및 기술 체계를 연구한 많은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어왔다. 이는 매뉴스크립트가 가지는 역사적 가치를 실현해야하는 아키비스트의 역할담론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단일 역사적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매뉴스크립트가 일반적인 기록물과 다른 역사적 맥락을 함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능·출처분류로는 그 맥락을 충분히 살릴 수 없다는 실무적 한계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른 국내·외의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는데, 대표적으로는 5·18민주화운동(오재일, 이명규 2002; 박정옥, 이명규 2013; 김익한 등 2015)과 민주화운동자료관(전영혁, 김영경 2001), 홀로코스트(정영란 2003), 9/11(Wallace and Stuchell 2011), 홈스테드 노동쟁의(Bastian 2009) 등이 있다.

박정옥과 이명규(2013), 그리고 한국국가기록연구원(2015)의 연구는 현재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자료정리 매뉴얼의 근간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지며, 박정옥과 이명규(2013)의 연구는 기록물의 본래적 속성을 유지하면서 기록물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패킷 분류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출처-시기-주제-형태 등 4가지의 분류 틀을 한 번에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오재일과 이명규(2002)의 연구는 매뉴스크립트, 즉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한 기록물이 사학 연구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5·18민주화운동이 가지는 가치를 추출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관련 단체를 직접 분류하고 자료의 유형별/매체별/주제별 현황을 분석하였다. 오재일과 이명규(2002)는 분류의 이론적

근간에서, 매체 중심의 문헌분류보다 선행하는 지식분류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분류기호의 명징성 및 접근용이성을 위해 기존에 익숙한 십진법의 활용성을 강조하며 KDC 형식의 분류체계를 고안하였다. 특히 5·18민주화운동에 관련된 내용을 자체적으로 분할해 분류에 반영함으로써 역사적 사건에 독자적인 맥락적 분류체계가 필요하다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익한 등(2015)의 연구는 관리의 차원에서 기록관을 뛰어넘는 시스템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특히 단순한 분류체계 뿐 아니라 기념재단, 연구소, 기록관, 광주트라우마센터 등 유관기관별 기록물 범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물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효과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관리-수집-시스템관리-서비스체계 등 통일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록물을 한 곳으로 모아 관리하기보다 기관별 특성에 맞는 기록물을 어떻게 하나의 관리체제 내에 효과적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지를 중점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분류체계를 주제분류-주제분류-시기분류 등 3가지 분류체계별로 각각 계층별 분류를 돕으로써, 박정옥과 이명규(2013)의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패킷 분류 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기술체계의 통일이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통합관리에 주축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복기술항목을 통합하고, 필수항목을 추가하여 기술표준 및 기술요소 단계를 준용함으로써 일관된 체계 속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역사적 사건에 독자적인 맥락적 분류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전명혁과 김영경(2001)의 연구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오재일과 이명규(2002)의 연구가 매뉴스크립트의 역사적 가치를 일깨우기 위한 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기록물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 이 연구에서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진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강조하며 매뉴스크립트의 분류는 기록관 건립의 초창기에서부터 함께 가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실무에 있어서 아키비스트의 업무과중 및 이론과 실무에서 아키비스트가 처하게 되는 어려움을 지적하며, 민주화운동자료관의 사례를 바탕으로 기록관 건립 과정에서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김솔아(2013)의 연구 또한 단일성이 강조되는 기록물에 있어서 분류와 디스크립션, 즉 기술이 함께 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가기록원 내에 수집된 사할린 한인에 관해서 현용 기록 및 이관기록 중심인 국가기록원의 체계가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매뉴스크립트 분야에서 역사적 사건 단위가 가지는 개별성과 독자성을 지적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특히 국가기록원에서 사용되는 분류(안)에 대한 접근뿐 아니라 이에 대한 실질적 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별 기록에 대한 단계적 기술에 관한 측면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해외 기록관을 연구대상으로 하거나, 해외에서 진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정영란(2003)은 기록이 한 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는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역설하며, 이를 표현하는 집합적 기억의 산실로서의 주제기록관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특히 이러한 가치를 홀로코스트기념관(The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

해 증명하고자 하였다. 홀로코스트기념관의 수집물이 단순한 매체나 특정 주제에 얽어 저장되어있지 않고 집합적 기억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맥락을 보존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묶여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체적인 맥락상의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Wallace와 Stuchell(2011)의 연구는 9/11 사건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형성과 운영, 최종 보고서 제출 전후로의 과정에 따른 기록물의 생산과 수집, 보존에 관련된 동시다발적인 사건들을 분석하였다. 9/11 기록물을 둘러싼 수집 보존 접근 관리는,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자 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 노력에 의해 형성되는 만큼, 정치적 비난이나 책임을 걱정하거나 수용하고자 하는 시각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따라 붙는 기록물의 생애 과정을 그대로 추적하면서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적 담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기록 또한 하나의 역사가 된다는 점에서 맥락이 없이는 기록물 안의 내용과, 기록물 자체의 내용을 형성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1892년의 홈스테드 노동쟁의에 대해 다룬 Bastian(2009)의 논문 또한 유사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집합적 기억의 형성과 기록물의 형성이 상보적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고자 미국 역사의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였던 1892년의 홈스테드 노사분쟁 사건이 발생하는 과정에 집중하여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사건에 대한 집합적 기억이 사건 내에서 전체의 맥락을 문서화하고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을 강화하는지를, 집합적 기억과 기록물이 상호적으로 서로의 생산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분석하여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즉 집합적 기억이란 이미 완성된 맥락을 통해 고정된 개체가 아니며, 기록의 생산이라는 행위 자체가 개입됨으로써 새롭게 발전될 수 있는 개념임을 지적하고 있다. 단순한 행위의 증거로서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역사의 한 축이 된다고 기록을 해석함으로써, 상기에서 언급되었던 역사적 사건들은 삶을 구축하는 하나의 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연구들이 주로 특정 시점에 고정된 역사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석하였다면, 다른 측면으로는 사건이 시기에 따라 진척되고 발전했을 때 우리 삶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연구들은 통시적 시각에서 하나의 주제를 통해 삶의 관점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화두, 특히 운동이나 제도적 상징의 측면에서 발전해오는 양상을 담기 위해서 기록관 건립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연구는 노동기록관의 설립방안에 대해 논한 조지영(2010)과 대통령기록물이 가지는 현대사적 가치를 강조한 정광훈과 남영준(2013), 성소수자 아카이브를 연구한 홍설아(2013)와 Wakimoto, Bruce와 Patridge(2013) 등이 있다.

조지영(2010)은 노동이 우리 삶에서 갖는 중요성을 바탕으로, 현행의 기록보존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민간기록 중심의 노동기록이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함을 지적하며 노동기록관의 설립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기록관이 기록관 이상으로 노동자의 삶을 지원하는 적극적 형태의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남영준 등(2012)은 대통령기록물 주제별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는데, 상위분류는 계층성을 중심으로 하위분류체계는 주제를 중심으로 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이는 기록물 이용자의 이용가능성을 확대하는 방향이 고려되었다. 정광훈과 남영준(2013)의 연구는 대통령기록물이 사료를 넘어서 현대사를 증명하는 문화재로써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대통령기록물을 통치적 요소를 갖는 부분과 국무 관장 부분으로 구분하여, 각 업무성격에 따라 주제 추출 방법에 차이를 두고 보다 합목적적인 분류체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대통령기록물이라는 화두를 통해 현대사의 한 축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안하고 실제 적용 가능한 분류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남영준 등(2012)의 연구가 이론적 기반에 근거하여 대통령 기록물의 주제적 범주를 도출해내었다면, 이해영 등(2013)의 연구는 이렇게 형성된 주제 분류 체계의 문제점을 실제 이용의 차원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제안하였다. 주제는 있되 실물기록물이 분류되지 않거나 범주가 겹치고, 계층분류에서 계층별 논리구조의 불안정 등이 지적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의 논리적 서비스 체계 구축에 있어 한계가 대두되었다. 따라서 이용자가 사용하는 자연어를 기반으로 현행 주제 분류체계를 보완하고자 목록 형태소분석 및 검색어, 정보공개 청구 용어 등을 분리 추출하고 기존 분류체계와 해당 용어를 매핑하였다. 이를 통해 자연어를 기반으로 한 전거 구축 및 기록물 내적으로 활용되는 용어의 활용 및 주제 분류의 귀납적 계층 구조를 수립하는데 기여하여, 명확한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별 추가분류 및 재분류에서 적절한 주제어를 부여할 수 있었다.

홍철아(2013)는 역사의 흐름이 권력자에게서 소수자와 인간 보편에 대한 관점으로 확장되고 있음에 따라 소수자의 삶을 지원하는 기록의 역할을 주창하며, 성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그들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향상을 위한 성적 소수자 아카이브의 모형 구축을 제안하였으며, 현행 아카이브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수집범위 및 설립주체에 따른 다양한 구축모형을 제안하였다. Wakimoto와 Bruce, Patridge(2013)는 정부 관련 자료나 학술자료, 공공아카이브 바깥에서 성적 소수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에 의해 생산되는 커뮤니티 아카이브가 단순한 기록의 보존 뿐 아니라 커뮤니티의 역사에 대한 교육과 결속력 형성의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캘리포니아 퀴어 아카데미 3곳의 사례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다. 특히 커뮤니티 아카이브에서의 활동주의(activism)에 입각하여, 커뮤니티의 활동에 전문적인 아카이브 업무를 포함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 시사점

기록이 가지는 특성으로 인하여 분류만으로는 완전히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모든 매체들이 그러하겠지만, 기록물은 특히 그 계층적 속성으로 인해 기록물간의 관계를 설

명하기 위해서는 다계층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실무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의 중요성을 지적해왔다. 즉, 분류를 기반으로 군집을 형성하되 기록물 개체 사이의 구체적 맥락은 기술을 통해 형성되어야 하며, 통합분류체계는 기술요소의 관점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매뉴스크립트가 가지는 역사적 맥락의 보존과 기록물이 가지는 특성은 취사선택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특정한 주제 및 화두로 치우쳐 기록의 속성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거나, 기록물의 속성에 집착하여 하나의 역사적 기록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맥락을 무시한다면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록물 분류체계를 실제적으로 성립할 때에는 하나의 역사적 주제가 공유되는 가치와 사명에 대한 면밀한 이해와 기록물들이 가지는 외형적이고 매체적인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역사적 기록은 그 자체로 끊임없이 발전하는 주체이다. 즉 매뉴스크립트는 한 시기에 완성된 고정된 대상이 아니며, 그 기록을 보고 향유하는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기록이 생성되거나 수집되거나 묶임으로써 매뉴스크립트는 그 자체에 관련된 새로운 집합적 기억을 생산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매뉴스크립트는 특정한 시간에 고정된 하나의 정태적(靜態的) 사건의 증거물에서 나아가 세상을 보는 하나의 관점을 생산하는 동태적(動態的) 기억으로 나아가게 된다. 따라서 기록물의 분류체계는 완전무결한 고정 값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끊임없이 재생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위해 유연하게 변화하고 적용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Ⅲ. 주요기관 기록물 분류체계 사례분석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특정사건에 기반을 둔 역사적 기록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과 유사한 형태의 사건중심의 주체기록물을 수집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컬렉션 중심으로 분류체계의 고려를 위해 객체중심으로 기록물의 분류하는 기관에 대한 사례조사도 실시하였다.

1. 국내사례

가.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은 기록물관리를 총괄하고, 기록물을 영구보존하기 위한 기관으로, 1962년 내각사무처 총무과 촬영실로 개설되었다가 1969년 총무처 소속으로 '정부기록보존소'가 설립되면서 정부의 영구보존대상 문서, 도면, 카드 등을 집중 보존관리를 시작하였다. 주요 업무는 기록

물의 수집, 평가/기술, 폐기, 보존, 활용에 있어 통합적 관리의 준거를 제공하는 데 있다.

국가기록원은 현재 생산되고 있는 행정적인 기록물에 관하여서는 업무과정에 기반한 정부 기능분류체계(BRM)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미 수집된 기록물은 보편적 기록분류체계를 준용한다. 국제기록관리협회(ICA)에서 제정한 '국제보존기록기술규칙(ISAD(G))'을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여 「영구기록물기술규칙」을 공공표준으로 제정(2008년 제정, 2011년 개정)하여 그 규칙에 맞게 기술하고 있으며, 기술요소 중 '식별영역-참조코드'를 통해 기록물을 분류하고 있다. 다계층기술(多階層記述)의 원칙에 따라 낱권 단위가 아닌 관련기록물 묶음으로 분류·정리하여 가장 크고 일반적인 것에서 가장 작고 구체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연속체를 따라 기록물을 묶어주고 기술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에서 관리하는 기록물은 '참조코드'를 사용하여 기록물을 식별하고, 참조코드는 식별요소 중 필수요소이다. 참조코드는 국가 코드,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코드(컬렉션코드), 기록물하위권 코드, 기록물계열 코드, 기록물철 코드, 기록물건 코드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색에 있어서는 NAK/S 14:2011(v2.0) 「영구기록물 기술규칙」에 의거하여 기록물을 분류, 기술한 결과를 '계층별 검색'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기록물을 조직과 기능에 근거한 군(group 그룹)/계열(series 시리즈)로 분류하고 해당계층에 포함되어 있는 기록물의 내역을 기술규칙에 의거 기술하여 제공한다. 국정분야별 주제 분류체계는 국정분야별과 주제유형별로 구분되는데, 국정분야별 분류는 국정분야를 크게 28개로 나누어 제시하고, 각각을 세분화하여 이들을 다시 하위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주제별 주요 내용과 관련 기록물 및 목록 등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대통령기록관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직무수행 등과 관련하여 생산, 접수한 기록물을 말하며, 대통령 본인을 포함하여 대통령을 보조하는 조직이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그와 관련된 행정박물을 모두 포괄한다.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보존기록관으로 설립되었다(한국기록관리 2008, 408-409). 주요업무로는 대통령기록물의 수집·생산기관 지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기술 체계 구축, 대통령기록물의 보존·복원 인프라 구축, 대통령기록물의 국민 친화적 서비스 체계 수립 등이 있다.

대통령 기록물은 출처별로 하나의 레코드그룹으로 분류하고, 해당 그룹 내에서 기록물의 유형을 고려하여 세부 분류된다. 종이기록물, 전자기록물, 시청각기록물, 행정박물, 대통령선물로 유형별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다(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대통령기록물의 주제 분류체계는 전체적으로 정부부처와 대통령실, 대통령직속기관에 포

함되는 업무를 포괄하고 있으며, 행정수반으로서 대통령이 행정부 내에 존재하는 기관의 통제와 감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록물을 포괄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구성한다. 기술체계는 홈페이지 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나, 원문제공보다는 2차 생산 및 정리된 콘텐츠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서는 2008년 2월 이관분의 대통령별 레코드그룹-시리즈의 기술을 완료하여 분류체계검색을 지원하는 중이며, 전체 분류계층은 대통령명/레코드그룹·컬렉션/서브레코드그룹·서브컬렉션/시리즈/서브시리즈/파일/아이템(기록물철·건)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2000년 여·야 의원 82인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1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을 근간으로 설립되었다. 민주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과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사업, 민주주의 관련 기록물 및 기억을 수집하여 온라인과 열람실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사료관 운영, 민주화운동의 경험 및 성취를 국민적 자부심으로 승화시켜 후대에 전하기 위한 기념사업, 국제협력사업, 민주주의전당 건립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록물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사료관 자체적으로 분류체계가 존재하며, 수집된 사료의 평가, 내부 관리시스템 등록을 위한 목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따라서 분류기호보다는 등록번호로 기록물을 식별하고 있으며, 등록번호와 별개로 기록물 등록을 완료하면 사료참조코드가 생성된다. 이는 실물 사료의 고유 번호로 메타데이터 작성 후 저장과 동시에 등록번호와 같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또한 기증자를 사료군으로 생성하여 관련된 시리즈와 파일철, 아이템으로 구성하여 서고에 배가 및 보존하고 있다. 또한 Open Archives를 통해 민주화운동의 기록물들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사료 컬렉션/사진아카이브/사료콘텐츠/구술 아카이브를 공개하고 있다. Open Archives의 기록물 웹서비스를 위한 기록물의 분류는 주로 사건별로 이루어져 있어 사료데이터 기반의 귀납적인 분류체계라고 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사료 컬렉션을 ‘주요민주화운동별’, ‘연대별 분류’로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민주화운동별 분류는 4·19혁명, 한일협정반대운동(6·3운동), 3선개헌반대운동, 유신헌법반대운동,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구분되고, 연대별 분류는 10년 단위로 해당되는 민주화운동컬렉션을 분류하고 있다. 사진아카이브는 사건을 중심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대분류-중분류-소분류로 사건이 점점 세분화되는 과정을 거치며, 대분류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이승만 정권, 4·19혁명, 5·16군사쿠데타와 제3공화국, 10월 유신과 종신집권의 몰락, 5·18민주화운동, 제5공화국과 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문

민화와 민주화로의 여정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수집된 자료는 문서류, 사진필름류, 음성영상류, 박물관 등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있으며, 사료에 대한 평가 요소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2. 국외연구

가. 홀로코스트기념관

홀로코스트기념관(The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은 나치정권에서 희생된 600만 유대인 학살 사건의 기억을 보존하여 이와 같은 전례 없는 비극을 널리 알려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자각시키고, 현실에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1993년 4월 정식으로 개관하였다. ‘홀로코스트가 가지는 특성’과 ‘이를 기억하기 위한 시민들의 도덕적 의무’이라는 두 가지 기조를 중심으로 역사와 관련된 대상들을 수집, 보존, 선별한 전시, 대중교육을 위한 이용프로그램, 홀로코스트 관련 각종 연구와 편찬활동,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예술품 및 유물의 수집과 보존, 기억의 날(홀로코스트 의식수행)이라는 다섯 가지의 기본활동을 하고 있다.

수백의 크고 작은 개인문서(papers)를 중심으로 한 컬렉션들은 1980년 이후로 기념관의 주도하에 수집되었으며, 2002년 중반에는 천팔백만 페이지 이상의 기록이 수집되었다. 또한 예술품과 유물, 영상물과 생존자의 증언을 담은 구술, 사진, 음악 등의 다양한 매체의 기록물들이 수집되었다. 기념관은 이 같은 기록물들이 단순한 보관에서 그치지 않고 잠재적 이용자를 포함한 대중들에게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전시 및 이용 프로그램, 연구지원 및 편찬활동을 통해 여러 방안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재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NARA(National Archives & Records Administration)에서 기밀로 지정된 기록물을 해제하기 위한 프로젝트 등을 수행하는 국제단체로도 활동하고 있다.

홀로코스트기념관의 기록물 분류체계는 레코드그룹 Record Group(RG) Number와 입수번호 Accession Number로 이원화하여 관리되고 있다. RG Number는 기록물의 컬렉션 번호이며, Accession Number는 기록물의 입수정보를 담고 있는 번호이다.

홀로코스트기념관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생산되고 수집된 기록물이 기록관 차원의 적극적인 수집을 통해 축적되는 수집형 기록관으로, 정기적인 이관절차를 통해 기록물이 수집되는 조직형 기록관과는 다르다. 수집형 기록관의 특성상 관리하는 기록물들이 다양한 출처를 지니고 이질성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유기적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홀로코스트기념관이 개관 후 10년 간 기록관리 관련 이론과 관행에 따라 아키비스트 및 역사가들의 경험에 기반하여 현재의 레코드그룹의 형태를 갖추었다. 그러

나 최근에는 ‘출처 존중의 원칙’을 중심으로 기록을 분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록물의 생산지(지역, 생산자)보다는 출처원(기증자, 기증기관 등 기록물이 수집된 출처)를 중심으로 기록물을 등록하고 목록화 하고 있다. 따라서 출처 존중의 원칙을 중심으로 기록물을 구성하기 이전의 기록물과 그 이후의 기록물을 구분하여 다른 레코드그룹을 생성하여 최근 수집된 기록물을 배치하고 있다.

레코드그룹의 구조는 전통적인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예) RG-02.0129 = RG-02의 129번째 기록물). 레코드그룹은 기록물군의 주제를 기증자 중심으로 한 개인컬렉션, 특정 주제 중심으로 출처나 기증자에 상관없이 형성된 주제컬렉션, 일정 지역을 바탕으로 한 지역컬렉션, 생존자 증언이나 소규모 컬렉션, 혹은 관련 작품 등 분류가 애매한 기타컬렉션 등의 다양한 범주로 설정되며(정영란 2004, 58-87), 각 컬렉션 간 도보라 참조(See also)를 통해 상호 연관되는 컬렉션의 연결하고 있다.

입수번호(Accession Number)는 기록물이 분류 과정 중에 레코드그룹 지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레코드그룹 지정자의 지정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부여되는 번호를 의미하고, 입수년도, 아카이브(A), 해당입수년도 일련번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철/건/쪽 등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병기된다. 최근 들어 모든 기록물의 수집이 ‘기록물 수집 부서’의 하부 부서를 거치지 않고 등록되었고, 이에 1999년부터 아카이브 표기(A)가 사라지고 있다. 입수번호만 부여된 상황에서도 이용자들은 기록물명 및 입수번호로 기록물 검색이 가능하다.

나. 미국 백악관기록관리실

미국 대통령 기록물의 분실, 훼손,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이 1939년 자신의 기록물을 연방정부에 기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1940년 대통령도서관이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의 대통령기록관은 국가의 중요한 기록물인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별로 한 곳에 통합적으로 정리하여 집중 관리 및 보존함으로써 역사연구자나 정책연구자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정보센터의 역할과 국민들에게 역사 및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사회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 대통령의 사적·공적 문서, 연방문서, 직원문서, 시청각자료, 선물 및 박물관 자료, 구술자료 등의 다양한 대통령 관련 기록물들이 컬렉션의 성격에 따라 알파벳순, 연대순, 문서유형별, 주제별 등의 다양한 분류체계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고 받은 문서는 활용이 끝나면 백악관 내의 기록관리 담당 부서인 ‘백악관기록관리실(White House Office of Record Management, WHORM)’로 이관되어 관리되며, 임기가 끝난 대통령기록물은 NARA(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의 지도 및 감독 하에 대통령 개별 도서관을 통해 관리된다. 대통

령기록물컬렉션 중 대통령과 그 직원들이 업무 수행 중에 생산한 문서의 파일인 ‘백악관센터럴파일(White House Central File)’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WHORM에서 관리한다. Kennedy 행정부 시기에 WHORM은 백악관센터럴파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파일링하기 위해 1961년 『백악관파일링매뉴얼(The White House Filing Manual)』을 개발하였으며, 현재까지 대통령기록물의 주제파일 분류에 있어 기본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백악관파일링매뉴얼」의 주제파일은 62개의 주제코드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주제범주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각 대통령기록물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 및 기타 국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도서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제파일은 주요범주와 세부하위범주로 구분되며 주요범주는 문자코드(약어)로 표기되고, 하위범주는 숫자코드로 표기되며 이 둘을 혼합하여 주제코드를 형성한다.

다. ONE National Gay & Lesbian Archives at the USC Libraries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성소수자(LGBTQ¹⁾) 기록관이다. 1952년 설립된 이후 정기간행물, 서적, 영화, 비디오 및 오디오, 사진, 삽화, 단체기록 및 개인기록을 포함하여 200만 개가 넘는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USC Libraries의 소속이 되었다. 성소수자의 역사적 기록물을 수집, 보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성소수자들의 역사를 대중에게 알리고, 새로운 학문을 장려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One National Gay and Lesbian Archives의 기록물은 648개의 물리적인 컬렉션과 18개의 미완된 컬렉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8개의 컬렉션이 온라인으로 제공됨. 주요 소장 기록물은 1940년대부터 Jim Kepner가 수집한 개인 아카이브의 기록물들과 ONE 연구소의 기록물,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들이며, OAC(Online Archive of California)를 통해 컬렉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컬렉션 가이드(Collection Guide)에서 기록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주제 파일(Subject File)은 20세기 성적 소수자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파일들로 컬렉션이 구성되어 있으며, Jim Kepner의 동성애 관련 연구를 포함하여 홍보자료, 신문이나 잡지, 설문조사 등 다양한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

3 종합분석 및 시사점

기록의 분류는 근본적으로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주제)’에 근간을 두고 있지 않다(한국기록관리학회 2013, 191-192). 기록이란 행해졌던 행위의 증거로 전통적으로 인식되어왔으

1)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Queer

며, 존재하는 주체의 관점을 반영한 것으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기록물 분류는 현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목적을 가지므로, 기록물 조직을 위한 핵심 원칙으로 ‘출처의 원칙’과 ‘원질서 존중의 원칙’이 제시되었다. 현용기록의 관점에서는 조직구성과 업무기능을 중심으로 맥락을 형성하고자 했다면, 이미 고정된 맥락이 존재하는 비현용기록(보존기록)의 경우에는 맥락을 보존하는 것이 종결지어진 행위를 증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개별 주제기록관은 특정 주제 하에 모인 기록물에 시대적 맥락을 새롭게 복원할 분류 방법론을 찾을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주제기록관의 분류방법론은 기록의 목적근간인 증거적 속성의 보존을 위하여 기록물 표준에서 제안하는 기록의 기초 속성을 포함해야 하며, 기록관의 형성 목적, 사회적 책무 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개별 주제기록관별로 독자적인 주제분류체계 및 수집된 자료의 매체유형적 다양성을 고려한 분류체계가 필요하다.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집합적 기록물군의 성격이 강해 셸렌버그의 ‘출처의 원칙’을 통한 기록물군(Record Group)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째, 정부 혹은 엄격한 조직체의 주요 조직단위 기반의 기록물군(Archival Groups). 둘째, 조직 전반의 기록물을 위해 설정한 일반적인 기록물군(General Archival Groups). 셋째, 특정 부문의 조직체나 기관의 기록물을 위해 설정되는 집합적 기록물군(Collective Archival Groups)(Schellenberg 1956)이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과 가장 성격이 흡사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오픈아카이브와 홀로코스트기념관의 기록물 분류는 ‘집합적 기록물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사건과 기증자를 중심으로 구분되고 있다. 특히, ‘사건(주제)’를 중심으로 컬렉션을 구성하고 있는 점이 주목해야 한다. 기록물의 식별부호를 부여할 때는 ‘등록번호’와 ‘입수번호’, 그리고 ‘컬렉션번호’를 활용하여 기록물의 맥락과 원질서를 고려해야 하며, 수집되는 기록물들의 성격을 고려한 집합적 기록물군을 생성하기 위한 ‘기록물 내용/유형 분석’이 필요하다. 각 컬렉션의 구성 유형으로 개인명(기증자), 연대, 사건(주제), 조직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주제기록관의 기록물은 역사적 사명감을 보유한 아키비스트의 관점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즉, 하나의 사건이나 화두를 온전히 재현함과 동시에, 전시 및 프로그램의 기획에 있어 해석의 다양성을 제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IV.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실증분석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1월 현재 5층 수장고에 34,143점과 4층 자료실에 6개 분야 27,244권 등 총 51,387점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소장자료의 경우 매년 수집되고 정리됨으로 인해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6년 1월 현재 62,352점을 보유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

재 자료의 경우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이는 총 3,801점이 해당된다.

5·18기념재단 기록물 보유자료는 2015년 10월 기준 30,678건이며, 문서류가 11,734건으로 가장 많으며, 도서류 9,830건, 작품류, 시청각류 등을 소장하고 있다. 2016년 2월 현재 34,414건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남대 5·18연구소 기록물의 자료 구성 기준은 주제별, 매체 형태별, 열람실별로 나뉘지나, 주제별 구분의 경우 자료 유형이나 취득 방법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군집화되어 있다. 2016년 12월 현재 목록화 된 자료들에 한정하여 집계된 소장 자료는 20,904건이며, 비도서 자료의 경우 자료의 분량이 아니라 내용과 유형에 따라 1점으로 구분되고, 전시용 자료는 대부분 사본이며 또한 일부는 연구소 행정실 및 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다.

1.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형태소 분석

본 연구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대표 소장기관인 5·18민주화운동기념관, 5·18기념재단, 전남대 5·18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 관련 기록물을 대상으로 출처, 자료유형, 제목을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기록물을 통합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에서 추출한 각 자료의 제목을 형태소 단위로 분석하였으며, ‘~의’, ‘~에 대한’ 등 조사를 제외하고 빈도수가 높은 명사를 추출하였다. 또한 출처 및 자료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상위빈도 출처 및 자료유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 자료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기념재단’, ‘전남대 5·18연구소’에 소장중인 자료 중 5·18민주화운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단행본 및 논문 자료 등을 제외한 총 39,876건이며, 해당 기록물의 형태소 분석을 통하여 명사를 추출하였으며, 출처와 자료유형 또한 별도로 추출하였다. 추출된 명사와 빈도는 주제, 출처, 자료유형을 반영한 통합분류체계의 개발을 위한 참고 정보로 이용하였으며, 형태소 분석은 KWI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출처 및 자료유형의 경우 형태소 단위로 분석을 실시할 경우 분리에 따른 오류가 생길 수 있어 분리하지 않고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출처는 총 44,149개 어휘 분석을 통해 5,960개의 출처를 도출하였다. 자료유형의 경우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대단위 분류만을 하고 있었으며, 전남대 5·18연구소의 경우 소단위 분류만을 사용하고 있었다. 반면 5·18기념재단은 대단위와 소단위 모두 분류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자료유형 분석에 있어 대단위 분석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과 5·18기념재단의 대단위 분류를 통합하여 분석하였으며, 소단위의 경우 5·18기념재단과 전남대 5·18연구소의 자료를 통합하여 분류하였다. 분석결과 대단위 분류 20개의 유형과 소단위 분류 970개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제목에 대한 형태소

분석 결과 제목의 경우 183,729개의 Token(어휘 분석)²⁾을 통해 37,986개 유형의 명사를 도출하였다.

〈표 1〉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 형태소 분석 대상 자료 수

분류	소장자료	수집자료	분석자료	비고
5·18민주화운동기록관	47,019	47,019	20,905	도서관 소장자료 제외
5·18기념재단	34,414	17,023	17,023	
전남대 5·18연구소	13,525	6,597	1,948	후속 단행본 및 논문 제외 중복자료제거
계	92,685건	70,639건	39,876건	

2. 분석결과

가. 기록물 출처의 측면

출처 분석을 통해 도출된 출처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출처는 ‘출처불명’으로 나타났다. 기록물의 경우 출처 중심의 원칙이 비교적 철저히 준수됨을 볼 때 출처불명의 자료가 높다는 것은 정확한 기록물의 보존 및 분류가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기록물의 이용 및 활용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다. 출처불명을 제외하고 높은 출현빈도를 보인 유형은 5·18기념재단 자료가 있었는데, 이는 5·18 관련 연구보고서 및 신문자료 등의 분류에 있어 생산자를 5·18기념재단으로 등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정확한 분류가 어려운 기록물의 경우 생산자를 발굴한 기관으로 처리함으로 나타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자료의 출처를 세분화 하여 통합분류체계를 제시가 필요하다.

상위 출현빈도를 유사기관 단위로 그룹화한 결과 5·18 관련 단체가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공공기관이 다음으로 높았다. 이는 많은 자료가 5·18 관련 단체에 의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자료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통합분류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상당수는 언론기관을 통해 입수된 자료로 확인되었으며, 언론기관의 경우 실질적 빈도는 높지 않지만 상위 출처에 가장 많은 기관이 생산자로 포함되어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개발되는 기록물을 분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분류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2) 일련의 문자열에서 구분할 수 있는 단위로, 컴파일러나 어셈블러 등의 처리기에서 사용되는 어휘 분석 단위. 즉 공백, 구두점, 여는 괄호, 콜론, 세미콜론 등과 같은 특수 기호, 식별자, 지정어, 상수, 단말 기호 들로 인식된다. 키 워드, 변수, 연산자, 숫자 등이 있음(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 2> 그룹별 상위기관 수 및 출현빈도

구분	기관	기관수	빈도
5·18 관련 단체	5·18기념재단, 5·18기념행사위원회, 5·18기념문화센터, 5·18묘지관리사무소,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5·18 기념문화재단, 5·18기념공원관리사무소	7기관	7,777
공공기관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광주광역시청, 서울지방검찰청, 대법원, 광주광역시보상심의회, 국가인권위원회, 문화관광부, 전라남도, 광주고등법원, 광주보상심의회, 국사편찬위원회	11기관	7,619
출처불명	출처불명	1기관	6,691
언론기관	코리아스트리트저널, 광주일보, 동아일보, kbs, 전남일보, 무등일보, mbc, 한겨레, 광주mbc, 조선일보, 신동아, sbs, 중앙일보, 광주매일, 월간예향, 전남매일, 신문, kbc, kbs미디어, ebs, 경향신문	20기관	2,397
민간단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ymca영상채록단,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광주광역시정보센터, 한국문화예술진흥원,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민주쟁취국민운동전남본부,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극단토박이, 전남사회운동협의회, 전남민주청년운동협의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13기관	1,403
군사기관	국방부, 육군본부, 사단보군검찰부, 군사연구실,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국방부기무사, 국방부육군본부, 육군고등군법회의	8기관	703
개인	윤한봉	1기관	116
대학기관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총학생회	2기관	88
국외단체	미국무성	1기관	59
	계	64기관	26,853

<표 3> 자료형별 대분류 출현빈도

대분류	건수	대분류	건수	계
문서자료	9,730	문서류	8,273	18,003건
도서간행물	6,272	간행물	2,397	8,733건
		도서류	62	
		문서집	2	
시청각자료	1,950	영상류	2,587	5,865건
		구술자료	1,030	
		음성류	295	
사진자료	140	사진류	569	742건
		필름류	6	
박물자료	274	행정박물	1	473건
유품류	198			
도면자료	63	도면류	4	67건
대장류	50	-	-	50건
기타	577	-	-	577건

나. 자료유형분석 측면

현재 분류되고 있는 자료유형 측면을 살펴보면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경우 대분류의 형태로 자료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며, 자료명에 자료유형을 추가로 기술하고 있었다. 이는 검색기능이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을 경우 자료유형에 따른 검색 및 활용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자료명에 삽입된 자료유형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자료유형의 도출이 필요하다. 반면 5·18기념재단은 대분류와 소분류의 2단계로 자료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며, 전남대 5·18연구소의 경우 소분류를 통해 자료유형을 분류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기관의 분류 유형에 맞추어 통합하여 자료유형을 추출하였다.

분석결과 소분류의 경우 중복 및 유사 유형의 사용으로 실질적인 자료의 양에 비해 매우 많은 자료유형이 구분되어 있었으며, 5·18기념재단의 경우 246개, 전남대 5·18연구소의 경우 253개의 자료유형이 도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료 유형의 통합을 통해 자료유형을 축소하였으며, 통합분류체계에 적용하였다.

자료유형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자료유형과 매체유형이 자료유형 속에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CD, DVD 등 매체 유형을 시청각자료의 자료유형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자료유형으로만 구분되었던 유형을 자료유형과 매체유형으로 구분하여 통합분류체계를 제안한다.

다. 주제어 분석 측면

본 연구에서는 제목을 형태소 단위로 분류하여 명사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제어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수집된 기록물 자료의 경우 자료명에 정확한 자료명이 기재되어 있기 보다는 자료유형, 매체유형, 출처 등 다양한 내용이 삽입되어 있어 주제어 분석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도출된 명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관련 명사라는 전제하에 주제어 도출하였으므로, 완벽한 주제어 도출에 한계가 있다.

도출된 명사를 통해 주제어를 분석한 결과 소장 자료의 자료유형과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법률/법학 분야 기록물의 경우가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정치, 역사, 언론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통합분류체계는 주제 중심보다는 출처 및 자료유형에 따른 분류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4〉 주제어 도출을 위한 제목분석 결과

구분	본 연구의 주제어 분석 결과	건수
총류	결과보고, 결과보고서, 기념공간, 기념공원, 기념관, 기념문화관, 기념문화센터, 기념사업, 기념식, 기념재단, 기념전, 기념학술대회, 기념행사, 기념행사·사업, 기념행사위원회, 망월동, 목록, 목록집, 묘역, 묘역성역화사업, 묘지, 민주묘지, 민주유공자, 방명록, 보존사업, 부상자회, 사업계획서, 오월제, 유족회, 이장사업, 자유공원, 자유공원전시시설설계, 전야제, 종합기본계획, 주년기념, 준비위원회, 최종보고서, 추모, 추모사, 추모식, 추모제, 추모행사, 행사위원회	2,690
언론/저널/리뷰/방송	ebs, kbc, kbs, mbc, nhk, pd수첩, sbs, tv, tv실록, 경향신문, 광주mbc, 광주매일, 광주일보, 국민신문, 기자,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기자회견자료, 뉴스, 다큐멘터리, 대학신문, 동아일보, 미디어, 방송, 방송보도, 보도, 보도자료, 서울신문, 시사매거진, 신문, 신문기사, 신문자료, 신한민보, 언론, 인터뷰, 일본신문자료, 전남매일신문, 전남일보, 조선일보, 종합신문, 종합신문자료, 중앙일보, 취재수첩, 코리아스트리저널,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3,630
사회일반	가족, 공동체, 광주국제평화캠프, 광주국제평화포럼, 광주아시아포럼, 국민운동, 대교구, 목사, 미주한인회, 민권협, 민족통일, 민주노총, 부마민주항쟁, 부마사건, 사회, 사회단체, 사회운동, 사회평론, 사회평론, 서명운동, 시민사회단체, 아시아문화심포지엄, 자원봉사자, 자원활동가, 전남사회문제연구소, 천주교	1,495
정치	공개서한, 공동선언, 공청회,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 광주직할시의회, 광주청문회, 광주특위, 국회, 국회광주특위, 국회의원, 국회자료, 김대중, 김대중사건, 김영삼, 남북공동선언, 남측편, 내란, 내란음모사건, 노태우, 노태우정권, 담화문, 대선특집제, 대통령, 미국무성, 민주당, 민정당, 민주당, 반파쇼, 부정선거, 비밀해제, 상임집행위원회, 선거관련, 선언, 선언문, 선언서, 성명, 성명서자료, 시국선언, 시국선언문, 시민군, 시민대회, 신민당, 의원, 의회, 장기집권, 전남도청, 전대통령, 전두환, 정권, 조국통일, 청문회, 최규하, 취지문, 통일, 통일연대, 투사회보, 특별담화, 특별법, 특별위원회, 평민당, 평화민주당, 평화통일, 포고령, 한국정치, 한국정치학회, 한총련, 호소문	5,581
인권	고문, 고문살인, 광주민주인권평화, 광주아시아인권광주포럼, 광주아시아인권학교, 광주인권상, 광주학살, 망명, 민주인권관, 양민학살, 인권, 인권상, 인권연대, 인권영화제, 인권위원회, 인권지기, 인권포럼, 인권학교, 학살, 학살원흉, 학살자	904
법률/법학	계엄군법회의, 고발장, 고소장, 공소장, 구금, 구속, 구속자, 국가보안법, 군법회의재판기록, 군사법원재판기록, 군사재판, 기각, 기각결정서, 기소및불기소, 기타기각, 기타지원금,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민주헌법, 민주헌법쟁취, 법률, 법률관련, 법률안, 법정, 보상결정서, 보상결정서및행정소송, 보상금, 보상심의, 보상심의위원회, 보조금, 부상자, 불기소사건기록, 사망, 사망자, 상이, 상이기간, 상이자, 상이후사망, 석방, 소송관계절, 소송기록, 수배, 수사, 수사결과, 수사기록, 연행, 연행·구금, 연행·구금·상이, 연행·구금·수형, 연행·훈방, 일본지점간첩단사건공판기록, 작성조서, 재심결정서, 재심기각결정서, 재심기록, 재심사결정서, 재판, 재판자료, 증거물사진, 증빙자료, 증언, 증언내용, 증언록, 증언자, 증언자료, 증언채록, 증언, 증언채택심사, 진로비, 진상, 진상규명, 진상조사, 진정서, 처벌, 청구서, 청원서, 최후진술, 탄원서, 판결, 판결문, 행방불명자, 행불, 행불기간, 행정소송, 행정소송관계절, 헌법, 희생자	10,293
교육/군사/노동	강좌, 교과서, 교사, 교사연수, 교사용, 교수, 교육, 교육과정, 교육자료, 대학, 대학생, 민주시민교육, 수업, 수업사례, 시민교육, 아카데미, 아카데미연수,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참교육실천보고대회, 체험학교, 체험학습, 학교, 학생, 학습, 학원	703
	계엄, 계엄군, 계엄사, 국방부, 국보위, 군, 군부독재, 군사독재, 상무대, 상황, 상황일지, 작전, 전교사, 전투상보, 정기작전보고, 진압작전, 특전사	639
	고려시멘트장성공장, 노동, 노동자, 노동조합, 농민	169
예술	공연, 광주비엔날레, 기념공연, 대형포스터, 디자인, 만화, 미술, 상영작, 서울공연, 악보, 악보노트, 애니메이션, 연극, 연극제, 영화, 영화제, 예술작품, 음악제, 음악회, 전시관, 전시시설, 전시실, 전시회, 조선화보, 조형물, 청소년문화제, 청소년연극제, 포스터, 행진곡	956
문학	개인필기, 글쓰기, 루션선집, 문학, 문학상, 문학작품, 문학작품공모, 서한, 소설, 수기, 수상작, 수상작품집, 시나리오, 엽서, 오가이전집, 일기, 작품, 편지, 동화	452
역사	광주민주항쟁, 광주민주화운동,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광주사건, 광주사태, 광주항쟁, 민주항쟁, 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자료, 민주항쟁, 민주항쟁사, 민주항쟁정신계승, 사적지, 사적지안내, 세계기록유산, 역사, 역사관, 역사다시보기, 역사문화답사, 역사캠프, 영상채록, 오월, 오월광주, 오월상생, 오월운동, 오월유품, 오월이야기, 오월투쟁, 오월항쟁, 위령탑, 유네스코, 유품, 음성채록, 인물사, 인물현대사, 전라남도향토사, 정신계승, 총알파편, 향토사, 현대사	4,450
	소계	31,962

V.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분류체계

본 연구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분류할 수 있는 통합분류체계의 개발을 위해 선행연구 분석, 기관사례 분석, 실증분석을 통하여 분류체계의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통합분류체계를 도출하였다. 기존 선행연구 된 ‘출처 중심’의 패킷분류 안을 기본으로 이를 확장하는 측면에서 출처중심의 통합분류체계를 제시하였으며, 더불어 이용과 활용의 측면으로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확장되어가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분류체계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시대적 의미를 반영하여 역사적 사실과 사료를 기반으로 한 컬렉션 중심의 통합분류체계를 함께 제안하였다.

1. 출처 기반 통합분류체계

생산된 기록물은 보관주체에 따라 별도의 분류 및 보관방법을 선택하고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계층화 하여야 한다.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출처중심 통합분류체계에서는 광주광역시에서 개발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분류표(2014)를 기본 베이스로 하였으며, 이를 선행연구 및 타기관의 사례를 통해 수정·보완하였고, 실증분석이라는 귀납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분류체계 및 항목을 보완하였다. 기존 분류체계가 ‘주제-출처-시기-형태’의 과정으로 제안되었다면, 본 연구에서는 ‘출처-자료유형-시기-매체형태-주제’의 맥락을 가지고 통합된 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가. 출처별 분류체계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생산주체는 국가기관인 행정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뿐만 아니라 군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기관, 민간단체, 개인 등 매우 다양한 주체에 의하여 생산되었으며, 생산된 자료의 수집 및 보관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한 기관에 의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생산주체의 계층화 및 재정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실증분석 시 다수 출현한 기관을 고려하여 개발된 출처별 분류체계는 다음 <표 5>와 같다.

나. 자료유형별 분류체계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소장 관련 기관과의 면담결과 현재 별도의 자료유형 분류체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적으로 기록물의 주제에 맞추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2014)에서 제안한 자료유형 분류의 경우 현재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료유형에 비해 매우 협소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시청각자료의 경우 자료유형

〈표 5〉 출처별 분류체계

기록물군 (Record Group)		기록물계열(Series)		기록물군 (Record Group)		기록물계열(Series)	
구분	코드	구분	코드	구분	코드	구분	코드
공공 기관	공	청와대	01	민간 단체	민	YMCA	01
		내무부	0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02
		국회사무처	03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03
		대법원(법원)	04			한국현대사학회연구소	04
		검찰청	05			그 외 민간단체	99
		경찰청	06				
		국사편찬위원회	07				
		국가인권위원회	08				
		광주광역시청	09				
		전라남도청	10				
	그 외 공공기관	99					
군사 기관	군	국방부	01	5·18 관련 단체	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01
		육군본부(계엄사령부)	02			5·18기념재단	02
		군사법기관	03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03
		그 외 군사기관	99			5·18 구속부상자회	04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05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06
						5·18 기념행사위원회	07
				그 외 5·18 관련단체	99		
의료 기관	의	전남대병원	01	국외 단체	외	미국무성(미국방부)	01
		조선대병원	02			미 정부기관	02
		광주적십자병원	03			그 외 국외생산자료	99
		광주기독병원	04				
그 외 병원	99						
대학 기관	대	전남대학교(총학생회)	01	출처 불명	<불>	출처불명	01
		조선대학교(총학생회)	02				
		기타 대학교	99				
언론 기관	언	국내신문사	01	개인 기록물	개	개인기증물	01
		국내방송사	02			개인기록물	02
		국외신문방송사	03			시민단체	03
		대학언론	04			기타	99
		기타 언론	99				

보다는 매체형태에 따라 시리즈계열로 분류되어 있어 맥락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자료유형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록물군, 기록물계열, 기록물철 형태로 제안하였다. 개발된 자료유형별 분류체계는 <표 6>과 같다.

다. 시기별 분류체계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시기구분의 경우 대분류의 경우 총 7단계로 구분한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록물 분류체계를 준용하며, 세부 기록물의 경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진 아카이브 사례에 적용된 5·18민주화운동 사례를 기반으로 제안하였다. 개발된 시기별 분류체계는 <표 7>과 같다.

<표 6>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자료유형별 분류체계

기록물군 (Record Group)		기록물계열 (Series)					
구분	코드	구분	코드	구분	코드	구분	코드
문서자료	A	군자료	01	규정	02	보고서	03
		서신류	04	성명서	05	스크랩	06
		연설자료	07	유인물	08	재판자료	09
		진료자료	10	토론자료	11	행정자료	12
		회보	13	회의자료	14	기타	99
간행물	B	간행물	01	교육자료	02	단행본	03
		신문방송	04	자료집	05	정기간행물	06
		기타	99				
사진자료	G	사진	01	사진집	02	필름자료	03
		기타	99				
시청각자료	C	영상자료	01	음성자료	02	채록	03
		기타	99				
창작자료	D	문학	01	작품집	02	미술자료	03
		음악자료	04	포스터	05	기타	99
도면자료	E	설계도	01	무대도면	02	기타	99
박물자료	F	섬유류	01	플라스틱류	02	피혁류	03
		금속류	04	기타	99		

<표 7>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시기별 분류체계

생산시기		해당 기록물
구분	코드	
5·18 발생이전	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26 사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12와 신군부의 등장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울의 봄 <input checked="" type="checkbox"/> 민주화 요구 시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발발 당시	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진압작전 참여했던 부대에서 생산한 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진압작전을 지휘했던 상급 부대의 생산 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남도경찰국, 광주지방검찰청, 보안사령부의 속보철을 비롯한 일지류의 문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각급 행정관서에서 생산한 각종 상황일지, 명령서, 언론의 취재기록
사건 후 피해 수습 시	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군사법기관의 피해자들에게 대한 재판 및 수사기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남도청과 광주시청 등에서 생산한 피해 수습 관련 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보위 조사단 광주사태 진상보고, 전교사의 평가서
88-89 광주청문회	라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광주청문회 대비하여 국방부와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국회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생산한 기록물
5·18 관련 재평가기간	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서울중앙지급과 육군 감찰단에서 생산한 가해자들에 대한 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법부의 공판자료
5·18 이후 지금까지	바	<input checked="" type="checkbox"/> 5·18민주화운동 추모행사 및 사후처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5·18민주화운동 기념 시위현장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인과 단체가 기록한 기록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문 및 저널 등의 간행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문, 저서 등 연구자와 전문가가 생산한 연구물 <input checked="" type="checkbox"/> 문학, 음악, 영화, 미술 등의 예술작품
시기불명	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기를 알 수 없는 자료

라. 매체유형별 분류체계

본 연구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경우 매체코드를 별도로 부여하여 자료유형과 구분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료에 대한 관리 및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매체코드는 실증 분석을 통해 나타난 매체유형을 적용하였다. 개발된 매체유형별 분류체계는 <표 8>과 같다.

<표 8>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매체유형별 분류체계

매체유형		해당 기록물
구분	코드	
종이자료	P	종이(Paper)에 작성된 모든 자료
전자자료	E	인터넷자료 등 전자형태의 자료
자기테이프	M	마이크로필름 및 마이크로피쉬 형태의 자료
비디오테이프	V	비디오테이프에 수록되어 있는 영상 및 자료
CD	C	CD에 수록되어 있는 영상 및 자료
DVD	D	DVD에 수록되어 있는 영상 및 자료
보조저장장치	H	USB, HDD등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

마. 주제별 분류체계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마지막 분류는 주제어를 통한 주제분류다. 5·18민주화운동 아카이브의 경우 5·18이라는 특정한 주제를 가진 주제어카이브로 자료의 보관의 측면과 함께 이용과 서비스라는 매뉴스크립트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처중심의 분류체계와 함께 주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제어를 확장하여 제시하였다. 주제어의 경우 분류체계의 최하위에 제시함은 주제의 경우 출처중심의 자료분류 시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우며, 전자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전거 및 시소러스를 통해 주제구분과 상관없이 자료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존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실증분석 시 다수 출현한 주제를 고려하여 개발된 주제별 분류체계는 <표 9>와 같다.

바. 출처 기반 통합분류체계의 활용

본 연구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모든 기관이 선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통합분류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출처 중심의 기능적 분류체계를 개발하였으며, 출처를 포함한 총 5개의 요소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요소는 『출처, 자료유형, 시기, 매체형태, 주제어』등이며 각각의 요소에 대한 분류체계 구성을 통하여 통합분류체계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출처 중심 통합분류체계의 이용은 출처(수집년도에 들어온 입수번호), 자료유형, 시기(수집년), 매체형태, 주제어 순으로 작성하며, 각 요소의 경우 출처와 주제 사이에는 -를 활용하여 연결한다. 다음

<그림 2>는 출처 중심의 통합분류체계의 활용에 대한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표 9>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주제별 분류체계

주제어		해당 기록물
구분	코드	
일반	GE	5·18 관련 연구 결과보고서, 5·18 관련 단체, 5·18 기념사업 및 기념행사, 5·18 추모관련, 5·18 묘역관련, 5·18 유공자 및 부상자 관련, 5·18 관련 자료 목록집, 일반 종류 사항
언론·방송	PR	국내외 신문사·방송국, 정거지널, 5·18 관련 기자회견 및 기자회견문, 5·18 관련 다큐멘터리, 취재수첩, 논평, 신문·뉴스·방송 보도, 출판자료, 5·18관련 SNS 자료
사회일반	SO	가족 및 공동체, 5·18 관련 토론 및 포럼, 사회현상, 사회조직 및 제도, 지역사회, 사회복지, 외교문제, 국내 각종 사회운동 단체, 자원봉사, 종교단체 사회운동, 평론, 시민 사회단체
정치	PO	정치운동, 민주주의, 공청회, 정부기관(행정), 국회활동(특별위원회), 진상조사, 대통령관련 자료, 지방의회, 선거, 각종 성명서 및 담화문, 정당활동, 미국무성 및 정부기관 비밀해제 자료, 시국선언, 통일, 국외정치
인권	HU	국내·외 인권운동, 국제기구, 인권상, 인권영화제, 인권관련 포럼 및 교육, 정치·사회·문화적 인권, 5·18관련 교문 및 학술관련
법률·재판	JU	고소·고발 및 공소 관련, 연행·구금·상이·수형 관련, 재판결과, 법률관련, 증언, 진정, 탄원 관련, 진상규명 관련, 부상·사망·행방불명 관련, 국제사법, 기소 및 불기소, 보상금 관련, 군사재판 및 군법회의
교육	ED	교육정책 및 교육행정 관련, 각종 5·18관련 교육자료, 시민교육, 5·18민주화운동 관련 체험학습 및 체험학교, 민주시민교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원단체
군사	MI	군 관련 자료, 계엄관련 자료, 전교사, 특전사 등 5·18 진압작전 관련, 군부독재 관련, 각종 상황일지 및 상황보고 관련
노동	LA	노동운동, 노동조합, 노동자, 농민운동, 고려시멘트장성공장 해고관련 자료
예술	AR	5·18관련 예술작품, 3차원 대상물, 박물관, 행정박물관, 만화, 영화, 사진, 필름, 공연, 전시, 연극, 포스터, 음악작품(음악, 악보 등), 미술작품(화보, 도록, 회화, 도화, 그림, 서예, 판화, 조각), 예술운동
문학	LI	5·18 관련 문학자료, 시, 소설, 수필, 일기, 서간, 수기, 기행, 시나리오, 문학작품공모, 수상작품집, 개인기록물, 어린이 동화, 외국문학
역사·인물	HI	5·18민주화운동 관련 인물 및 전기, 5·18민주화운동 관련 역사. 국내외 민주화운동,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역사관, 5·18 관련 유품, 향토사, 현대사, 5·18 사적지 및 안내, 문화답사, 역사캠 프, 외국의 민주항쟁

출처 중심의 통합분류체계 활용

• 5.18당시 동아일보 기자가 찍은 사진자료를 USB에 담아 1990년 첫 번째로 입수된 이기성씨 기증자료.

개010001-G01N-(1990)H-PR

개 01 0001 - G 01 나 (1990) H - PR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① 출처 기록물군(Provenance Record Group)
- ⑥ 생년시기(Inclusive Dates)
- ② 출처 기록물 시리즈(Provenance Record Series)
- ⑦ 입수년(Accession Year)
- ③ 해당년도 입수번호(Accesses Number)
- ⑧ 매체유형(Format)
- ④ 자료유형 기록물군(Material types Records Group)
- ⑨ 주제(Subject)
- ⑤ 자료유형 기록물 시리즈(Material types Records Series)

<그림 2> 출처중심의 통합분류체계 활용

2. 컬렉션 기반 통합분류체계

매뉴스크립트는 특정한 목적 하에 기록을 수집하여 기록이 가지는 역사적 가치를 복원하는 작업이며,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경우 매뉴스크립트에 적합한 자료이다.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록 분류는 주제기록관으로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가지고 있는 기관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시발점이자 가장 효과적인 행위이다. 과거의 사건을 효과적으로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특정한 체계를 고정시키는 연역적 사고방법이 아닌, 존재하는 사건과 현상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컬렉션을 도출해내며 언제나 기록을 통해 재생산되는 사회적 가치와 관점을 반영할 수 있는 귀납적 접근 방식이 타당하다.

컬렉션 기반 레코드 그룹은 자의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명확하거나 특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이런 컬렉션 사례를 통해 레코드 그룹으로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사항을 추출해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컬렉션 기반 레코드 그룹의 가능성을 지닌 예시를 들어보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5·18민주화운동 귀납적 컬렉션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 및 예시

영역	고려사항	예시
기록 관리 활동	- 대상 기록군이 특정한 이유를 바탕으로 생산 후에 맥락을 부여받았는가?	기증자 컬렉션 윤상원 컬렉션
	- 대상 기록군이 기록의 기초적 조직 원칙을 지키지 못할 이유를 갖고 있는가?	유네스코 컬렉션
	- 대상 기록군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해보면 함께 묶여 나올 수 있는 공통된 키워드를 가지는가?	포스터 컬렉션
사건 관련 활동	- 대상 기록군이 5·18에 대한 옹호/부정 운동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가?	진상규명위원회 컬렉션
	- 대상 기록군이 5·18민주화기록관의 목적을 기반으로 새롭게 맥락을 형성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는가?	5·18 인식 개선을 위한 핵심 사료 컬렉션
	- 대상 기록군을 통해 특정 공동체의 활동을 명확하게 추측할 수 있는가?	5·18 여성운동 컬렉션
	- 어느 한 시점이나 시대에 대상 기록이 집중적으로 생산되었고, 그 이유를 알 수 있는가?	5·18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보도자료 컬렉션

컬렉션 기반 레코드 그룹 통합분류체계는 <표 10>의 고려사항에 대해 구체화된 키워드를 제시를 통해 해당 컬렉션 기반 레코드 그룹의 구축이 가능하다.

기증자 컬렉션의 경우, 한 사람의 생애에 있어 축적된 기록물을 통해 독자적인 맥락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해체하기보다 그 자체의 집합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기증자 컬렉션’이라는 대분류 하에 하위로 개별 기증자별로 소그룹을 만들어 기록을 보관하고 분류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유네스코 컬렉션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하여 특별히 가치 있는 것을 추려 모아놓은 9개 그룹이기 때문에, 출처의 원칙이나 원질서 존중의 원칙이 아니라 개

별적 활동에 의거하여 구성되었고 그 자체가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컬렉션을 구축할 수 있다.

‘포스터’는 실증분석에서 도출된 자료유형 중 403회 동안 도출된 키워드로 상당히 많은 영역을 차지한다. 따라서 5·18 포스터 컬렉션은 포스터가 전달하는 독특한 정보와 맥락을 고려했을 때 이 역시 독자적인 키워드로 구축할 수 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5·18 사건에 대한 정당한 조사를 통해 5·18의 정당성을 입증하였기 때문에 5·18을 부당하게 곡해하는 이들에게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기록물이다. 따라서 이 역시 독자적인 컬렉션으로 구축할 수 있으며, 실제로 유네스코 등재 기록물 하위에 컬렉션으로 존재한다.

아키비스트나 관련 전문가의 특별한 선정을 통하여 기록물에 새로운 맥락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목적이 5·18 정신의 홍보와 민주주의 의식 함양이기 때문에, 이런 목적에 부합하여 ‘5·18 인식 개선을 위한 핵심 사료’를 추출하여 맥락을 부여함으로써 컬렉션화가 가능하다. 5·18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및 공동체 그룹을 통해 독특한 문제의식과 하위 연구 분야에 대한 의식을 충족시킬 수 있다. 예컨대 여성운동가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5·18 당시 여성들을 주축으로 한 어머니회 등의 활동은 하나의 화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집단별 컬렉션 구축 가능하다. 또한 5·18에 관련된 화두가 사회적으로 알려질 때마다 새롭게 생산되는 기록물 또한 증대할 수 있다. 양적 분석에 근거하여 시기와 결부시켜 해당 이유를 바탕으로 컬렉션을 구축할 수 있다. 예컨대 5·18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면서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이러한 보도 내용을 하나의 컬렉션으로 구축하여 5·18 사건 후에 대해 관심을 가진 이용자들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상기 레코드 그룹은 하나의 가능성에 대한 예시로 실제 레코드 그룹 컬렉션의 경우 실무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아키비스트 및 기록물 관리 심의회를 통하여 구체화하여야 한다. 5·18민주화운동을 둘러싼 논의는 결국 5·18민주화운동을 어떻게 해석하고자 하는 행위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둘러싼 행위들을 통해서 유의미한 컬렉션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컬렉션 기반 레코드 그룹이 구축되었더라도 개별 이용자들의 관심사는 원문 fulltext 및 메타데이터 DB 구축을 통한 차후의 전거작업 및 시소러스 작업을 통해서 충족시키고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로 꾸준한 서비스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중요성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소장 기관별로 상이한 분류체계의 적용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존과

활용의 측면에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분류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통합분류체계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에 관한 선행연구를 포함하여 관련 기록물에 대한 문헌분석을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관련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국내외 기관사례를 종합분석 하였다. 또한 광주지역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소장 기관의 소장 자료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하여 분류체계의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통합분류체계를 도출하였다.

기록물의 분류는 근본적으로 기록물이 다루고 있는 주제에 근간을 두고 있지 않다. 이는 기록이란 전통적으로 행해졌던 행위에 대한 결과로 인식되어왔으며, 특정한 주체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록물 분류는 현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목적을 가지므로, 기록물 조직을 위한 핵심 원칙인 ‘출처의 원칙’과 ‘원질서 존중의 원칙’이 기본을 이루어야 한다. 이는 이미 고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현용기록의 경우 해당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되기 때문이다.

5·18민주화운동 기록물과 유사한 개념을 가지는 매뉴스크립트는 역사적 맥락을 보존과 기록물이 가지는 특성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특정한 주제 및 화두로 치우쳐 기록의 속성을 배제해 버리거나, 기록물의 속성에 집착하여 하나의 역사적 기록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맥락을 무시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처 중심의 원칙’, ‘원질서 존중의 원칙’을 기본으로 통합된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출처 기반 통합분류체계로 ‘출처-자료유형-시기-매체형태-주제’의 맥락을 가지는 패킷분류 방식의 통합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출처별 분류체계는 11개인 기록물군과 49개 기록물계열을 제안하였으며, 자료유형별 분류체계는 7개 기록물군과 44개 기록물계열을 제안하였다. 시기별 분류체계의 경우 생산 시기를 기본으로 7개 시기로 구분하였으며, 매체 유형 역시 7개 매체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주제별 분류체계의 경우 총 12개 주제로 구분하였으며, 각 주제에 해당하는 해당 기록물을 실증분석을 통해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출처 기반 통합분류체계의 제안과 함께 현대 기록물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컬렉션 기반 통합분류체계에 확장성도 함께 제안하였다. 현대의 기록물은 아키비스트의 주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기록을 재구성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와 함께 역사를 재현하는 역할 뿐 아니라 역사를 해석하고 현실에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정보, 지식, 문화, 기억, 공동체의 정체성 등을 총체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기록물에 대해 기존 보존의 관점에서 이용 및 활용의 관점으로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 과정에서 기록물은 주제라는 분류기준을 중심으로 생산된 출처를 분리시키는 과정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5·18민주화운동은 정치적 곡해 등 다양한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적 재

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며, 도시의 정체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적 해석의 중요성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5·18민주화운동의 맥락을 새롭게, 또한 적절하게 복원할 수 있는 통합분류체계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서비스의 핵심이자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광주광역시. 2014.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자료정리 매뉴얼』. 광주: 광주광역시.
- 국가기록원. 2011. 『영구기록물 기술규칙 (NAK/S 14:2011(v2.0))』. 대전: 국가기록원.
- 김솔아. 2013. 『사할린 한인 관련 역사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 김익한 등. 2015. 『5·18 민중항쟁 기록물의 협력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 5·18기념재단.
- 남영준 등. 2012. 『대통령기록물 주제별 분류 연구』. 성남: 대통령기록관.
- 박정옥, 이명규. 2013.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분류표 개발에 관한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13(2): 5-42.
- 오재일, 이명규. 2002. 5·18 광주 민중항쟁 자료의 분류 및 활용방안. 『민주주의와 인권』, 2(2): 249-290.
- 이해영 등. 2013. 『대통령기록물 주제 분류체계 고도화 사업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세종: 대통령기록관.
- 전명혁, 김영경. 2001. 기록관(Archives) 건립과정에서 아키비스트의 역할에 관한 연구: 민주화운동자료관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3: 65-90.
- 정광훈, 남영준. 2013. 우리나라 대통령기록물의 분류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1): 419-448.
- 정영란. 2003.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통해 본 주제기록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조지영. 2010. 『노동기록관 설립 방안 연구: 구로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과 기록물관리학전공.
- 한국기록관리학회 편. 2013. 『기록관리론 (3판)』. 성남: 아세아문화사.
-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고양: 역사비평사.
- 홍설아. 2014. 『성적 소수자 아카이브 구축 모형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기록관리학과.
- Bastian, J. A. 2009. "Flower for Homestead: A Case Study in Archives and Collective

Memory.” *The American Archivist*, 72(1): 113–132.

Wakimoto, D. K., Bruce, C., Partridge, H. 2013. “Archivist as Activist: Lessons from Three Queer Community Archives in California.” *Archival Sciences*, 13: 293–316.

Wallace, D. A., Stuchell, L. 2011. “Understanding the 9/11 Commission Archive – Control, Access, and the Politics of Manipulation.” *Archival science*, 11: 125–168.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o Ji-Young. 2010. *A Study on Planning Labor Archives Establishment: Focused on the Guro Area*. M. A. Thesis, Department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Choung Young-Ran. 2003. *Collecting Collective Memory in Special Subject Repositories: A Case Study of the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M. A. Thesis, Department of Archiv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Archival Science Myoungji University.

Hong Seoul-Ah. 2014. *A Study on the Construction Model of Sexual Minority Archives*. M. A. Thesis, Department of Archives Management Science. The Graduate School of Hannam University.

Jun Myung-Hyuk, Kim Young-Kyoung. 2001. “A Study on the Role of Archivist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 Archives: Focused on the case of the Korea Democracy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 65–90.

Jung Kwang-Hun, Nam Young-Joon. 2013. “Study on the Classification Guideline for the Korean Presidential Recor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1), 419–448.

Kim Ik-Han et al. 2015. *A Study on the Cooperative Management Plan of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Gwangju: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Kim Sol-A. 2013. *A Study of Sakhalin Koreans Related to the History of Systematic Records Management*. M. A. Thesis,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ookmyoung Women's University.

Korean Records Management Society. 2013. *Records Management* 3ed. Seongnam:

AsiamunHwasa.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2008. *Glossary of Recording Terms*. Goyang: Yuksabipyeongsa.

Lee Hae-Young et al. (2013). *A Study on the Subject Classification System Advanced Project of the Presidential Records*. Sejong: Presidential Archives.

Nam Young-Jun et al. 2012. *A Study on the Classifying and Selecting the Presidential Records*. Seongnam: Presidential Archives.

Oh Jae-Yiel, Lee Myoung-Gyu. 2002. "Classification of the Gwangju Uprising Materials and Practical Use." *Journal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2(2), 249-290.

Park, Jeong-Ok, Lee Myoung-Gyu. 2013.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Classification Table of May 18th Democratization Movement Archives." *Journal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13(2), 5-42.